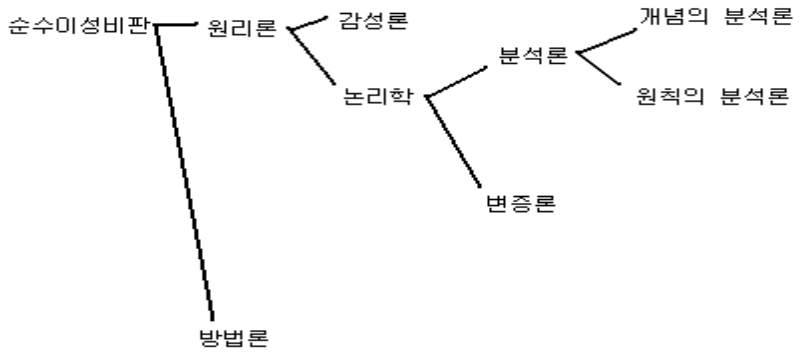
제5강 개념의 분석론 I

◆선험적 논리학과 변증론
(1교시)
※학습목표: 선험적 논리학의 의미와 개념의 분석론의 하나인 변증론을 살펴본다.

*참고사항



▲선험적 논리학
-대상과 주체가 있을 때, 대상이 우리(주체)의 감성을 촉발한다. 그리고 촉발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표상(vorstellung, vor앞에+stellung세우다)이다.
-그런데 표상들은 인식주체의 틀이 그것들을 종합하기 이전에 잡다(雜多)하다. 무엇인가 있지만 그것을 아직 인식주체가 무엇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잡다는 인식질료다. 과학으로 말하면 법칙이 추론되지 이전의 관찰이나 실험으로 주어진 data(주어진 것the given)다.
-잡다만으로는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체가 종합을 해야만 인식이 이루어진다.

▲인식의 두 원천
「우리 인식은 심성(mind)의 두 기본원천에서 발생한다. 하나의 원천은 표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인상(impression)의 수용성)이다. 또 하나의 원천은 이런 표상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개념의 자발성)이다.」
「우리의 심성이 그 어떠한 방식에서 촉발되는 한에서 표상을 받아들이는 심성의 수용성을 감성이라 한다면, 이와 반대로 표상 자신을 산출하는 능력, 즉 인식의 자발성이 오성이다. 즉 우리가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방식만을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와 반대로 감성적 직관의 대상을 생각하는 능력이 오성이다.」
-감성(받아드림)으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개념(자발적인 것)에 의해서 생각된다. 즉 지각하는 감성의 능력과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고능력이 합해져서 인식이 가능해진다.
-대상으로부터 인상을 얻어내는 능력이 감성이고, 그것에 의해 사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www.artnstudy.com

오성이다.

*참고사항

David Hume, 1711.4.26~1776.8.25

▲감성과 오성의 관계

「이 두 가지 성질은 우열이 없다. 감성이 없으면 대상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성이 없으면 대상은 도무지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내용(지관)이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지관은 맹목적이다.」

-만약에 감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식의 내용 없이 순수사변만 하게 된다. 또 오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상더미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반논리학과 선험적 논리학

-보통 논리학은 인식의 내용과 하등의 관계없이 인식의 형식만 문제 삼는다. 그래서 채우고 있는 명제가 말이 안 되더라도, 추론형식은 맞을 수 있다. 즉 일반논리학은 추론형식만 말한다.

-반면 선험적 논리학은 실제 대상이 현실에 적용되는 한에서의 오성 형식을 말한다. 세계에 적용되는 한에서, 인식하는 한에서, 대상과 접촉하는 한에서, 인식의 내용을 가진 한에서 오성의 형식을 다룬다.

▲변증론

「모든 우리의 인식에 오성의 형식을 주려고 하는-이런 인식의 내용은 자못 공허하고 빈약하지 마는-그럴듯한 기술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매혹 때문에, 인식을 판정하는 한갓 규준인 논리학이, 객관적 주장을 현실로 산출하기 위한, 적어도 마치 객관적 주장인 듯한 환영을 위한, 기관적인 것처럼 사용되어 왔고, 이런 사정으로 해서 사실로 오용되어 왔다. 이처럼 잘못되게 기관이라고 생각된 일반논리학을 변증론이라 한다.」

-분석론은 진리의 논리학이며, 변증론은 가상의 논리학이다. 칸트의 변증론을 단순한 개별적 오류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선 안 된다. 가상의 논리학에서의 가상은 선험적 가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간 이성에 끈질기게 붙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성이 일종의 자시의 배면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상을 다루는 것이 선험적 변증론이다.

-인식을 판정한다는 것은 오로지 형식만을 다룬다는 것이다.

www.artnstudy.com

-칸트에게 객관적object인 것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대상에 대한 촉발 없이, 대상에 대한 감성적 직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관subject이다. 즉 대상에 대한 직관을 갖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다.
-선험적 가상의 논리학: 일반논리학적 사고가 그것이 실제 객관적인 대상을 해하는 듯 한 착각, 인간 이성을 내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초월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www.artnstudy.com

◆인식구조와 오성
(2교시)
※학습목표: 칸트의 인식구조에서 오성의 역할을 살피고 그에 대한 비판까지 본다.

▲오성의 역할
「한 학문의 이러한 완전성은 그저 시험적으로 모아본 개념들을 개산함에 의해서는 확실하게 승인될 수가 없다. 한 학문의 완전성은 오성의 선천적 인식의 전체라는 이념과, 이「전체를 형성하는 개념들」의 일정한 분류와, 따라서 개념들을 하나의 체계로 조직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순수한 오성은 모든 경험적인 것에서뿐만 아니라 전(全) 감성에도 구별된다.」
-오성은 인식의 틀이다. 이 인식의 틀은 공허한 형식이 아니라, 대상에 적용되어야 하는 틀이다. 감성의 직관과 만나서 그 감성의 직관을 종합하는 것이다. 즉 감성의 직관이 인식질료를 만들고, 이 질료를 인간의 틀이 종합한다. 칸트는 인간이 오성의 틀이 있어서 이를 전부 해명해야 선험적 논리학이 선다고 본다.

▲오성의 의미
-칸트에 따른 인식체계는 완전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닫힌 체계다.
-칸트의 인식론에서는 잡다가 우리의 오성의 틀에 순종한다는 전제가 있다. 즉 인식질료는 발언권이 없다. 인식질료가 저항을 한다면 완전한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칸트식의 '대상'은 이미 그 존재가 인식주체 안에 놓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닫힌 체계로의 오성은 현대철학자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현대철학자들의 비판 1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어떤 존재하는 것들을 대상이라 하는 것은 근대의 주체 중심적 사고라고 본다. 이 근대의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 하이데거에게는 대상이 아니라 존재Sein란 말로 바꾼다. 그리고 주체가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본다.

▲현대철학자들의 비판 2 (들뢰즈)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근대적 '대상'을 주체 중심적 사고라고 본다. 그래서 마주침rencontre을 내세운다. 대상은 우리의 구성행위를 기다리고 있고 주체가 자신의 틀로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체가 대상과 부딪침으로써 자기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철학자들의 비판 3 (헤겔)
-헤겔에게 주체는 대상 앞에서 부딪치고 좌절한다. 즉 대상과 부딪치면서 그 대상을 인식해간다(노동Arbeit). 인식은 주체가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부딪치고 좌절하고 정복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헤겔은 칸트보다 더 주체 중심이다. 「실체와 주체가 같다」「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결국 목적론적으로 회수되어 주체의 절대성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더 주체 중심적이다.
-그러나 칸트의 경우 조건이 있다. 주체가 현상을 구성(종합)하지만, 주체가 구성할 수 있는

www.artnstud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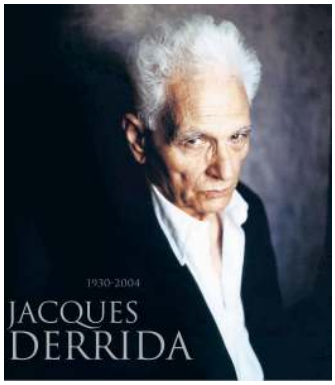
것은 현상계에 국한된다. 물자체는 남겨놓는다. 그러나 헤겔은 물자체도 모두 주체로 회수된다.

▲칸트와 플라톤
-우선 idea(eidos, paradeigma), chôra(matter-space, 물질공간), Demiurgos(조물주)를 말한다. 조물주가 이데아를 보고 이데아를 따라서 코라를 빚는다. 이데아의 흔적을 코라에 넣어서 빚는 것이다. 그런데 코라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조화있게 우주가 돌아가지만 항상 조금씩의 오차가 있다. 이데아가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코라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코라는 악역을 이데아는 주인공 역할을 한다.
-코라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점에서 칸트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내용과 맥락은 다르지만, 그 사유구도에서 물질적인 것(질료적인)은 수동적이고, 거기에 어떤 틀이 작동하여 구성한다는 사유모델은 똑같다.

*참고사항

『티마이오스』플라톤, 박종현역, 서광사, 2000

-다소 넘치는 해석
 코라를 민중으로 이데아(오성)를 법(코드, 제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회는 항상 틀로 사람들을 모양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코라는 항상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전복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데리다는 플라톤을 거꾸로 읽는다. 즉 코라의 저항성을 법이나 제도의 힘과 민중의 부딪침으로 본다.



www.artnstudy.com

Jacques Derrida, 1930.7.15~2004.10.9, 프랑스의 철학가

www.artnstudy.com